

내일 '한·일 V리그 탐매치'

배구협회장 인터뷰

“지방프로팀 창단 힘쓰겠다”

임태희 한국배구협회장



“이번 대회는 영원한 라이벌인 한국과 일본의 프로배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특히, 세계배구에서 우리나라 배구가 점점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 배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배구 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한국배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열리는 ‘한·일 V리그 탐매치’ 개최 의의를 밝혔다.

배구에 대한 열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침체된 상황에 대해 임 회장은 “우리나라 구기종목 사상 최초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여자배구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이후 서서히 침체를 거듭해 왔다. 특히, 아마추어와 프로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본선 진출에 실패해 결국 세계배구의 주변국으로 전락했다. 배구협회에서는 국가대표팀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협회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해 2010 아시안게임과 2012 올림픽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야구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처럼 극적인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

해 임 회장은 “아시아 클럽선수권대회와 세계클럽선수권대회가 있으나 우리나라 프로팀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대회의 국내 개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 회장은 “과거 9개의 여자 프로 구단이 있었으나 IMF 외환 위기 등을 거치면서 현재 5개 팀이 여자 프로 배구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여자 프로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2~3개 신생팀 창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제위기가 어느정도 진정되면 여자 배구 프로팀 창단에 적극 나설 생각이다.”며 신생팀 창단 의지를 표명했다.

학원 배구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 신생팀 창단지원, 꿈나무육성지원금 확대, 졸업선수 취업기회 확대 노력, 장신 자발금지도자 포상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면서 “아울러 지방 배구팀의 창단을 위해 배구용품 지원과 꿈나무육성지원금, 지도자 포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배구 활성화를 위해 해당학교 출신 중 국가대표 선수나 프로선수를 활용한 배구교실,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을 활용한 배구교실 순회개최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 회장은 “오는 2010년 중국에서 열리는 광주 아시아게임 남녀 동반 우승과 2012년 영국에서 개최되는 런던

올림픽 남녀 동반 4강 진출을 이루겠다. 또한, 배구발전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대표팀 운영, 유소년배구 활성화, 배구 기술지도 보급 및 지도자 양성, 국내배구 활성화, 협회 재정강화 및 행정 선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임태희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VS 전남 ‘남도더비’

내일 광양서 상무 “연승간다” 드래곤즈 “첫승 신고” 맞짱

연승행진 중인 광주 상무가 무승행진의 상반된 행보를 하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와 격돌한다.

K-리그 참가 이후 사상 첫 선두질주를 하고 있는 상무는 18일 오후 7시 광양전용구장을 찾아 전남을 상대로 순위 굳히기에 들어간다. 개막 이후 승 없이 3무1패로 14위에 머물고 있는 전남은 기세 오른 상무를 맞아 첫승에 도전한다.

역대 전적은 전남이 10승 5무 2패로 한참 앞서 있다. 특히 2003년 9월7일 1-1로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 전남은 홈에서 상무에 골골 패만 안겨주면서 강한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상무는 앞선 9번의 광양 원정에서 1득점을 하는데 그친 반면 14차례 골을 허용하면서 득실차에서도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3연승 질주중인 상무는 시즌 4승1패의 성적으로 선두 질주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결은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될 전망이다.

‘늦깎이 이등병’의 활약을 앞세워 무승 징크스를 날리고 있는 상무는 이번 주말 대결에서도 ‘광양 징크스’ 탈출에 도전한다.

상무는 지난 4라운드 부산원정에서 3-2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정규리그 40경기 무승의 기록을 깬다. 리그컵 포함 28경기 연속 원정경기 무승 징크스도 날려버렸다.

상무가 잇달아 무승 징크스에서 벗어나 리그 1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만큼 팀 분위기는 상무가 우세하다.

올 시즌 상무의 전력도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 훨씬 안정적이다.

개막 이후 5라운드 경기를 치르면서 나란히 3골을 신고한 김명중·최성국의 득점포

덕분에 상무는 8득점으로 득점 부문 2위에 올라 있다. 김용대가 지키고 선 상무의 골문은 단 3차례만 실점하며 실점 부문에서도 역시 2위에 올라 있다.

공·수 모두 안정된 전력을 보이고 있는 상무는 수비에서 약점을 노출하며 무승 행진을 하고 있는 전남을 거세게 몰아붙일 계획이다. 경기 초반 견고한 수비진을 구축한 뒤 역습을 통해 전남 수비진을 붕괴한다는 것이 상무의 필승 전략이다.

만년 꼴찌에서 1위로 극적 반전을 이룬 상무가 ‘남도더비’에서 전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면 창단 이후 첫 정규리그 4연승이다.

갈 길 바뀐 전남을 상대로 새로운 신화를 준비하는 상무의 움직임에 프로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맨유, 포르투 징크스 깬다



호날두 결승골 4강 합류 ... 박지성 결장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포르투 원정 저주’를 깨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2연패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맨유는 16일(한국시간) 새벽 포르투갈 포르트 ‘에스타디우 두 드라강’에서 치러진 2008-2009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원정 경기에서 전반 6분 터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기막힌 중거리포 결승골을 끝까지 지키면서 1-0으로 이겼다. 1차전 홈 경기에서 2-2로 비겼던 맨유는 1, 2차전 합계 3-2로 세 시즌 연속 UEFA 챔피언스리그 4강에 합류했다.

맨유는 이날 비야 레알(스페인)을 3-0으로 완파하고 4강행을 확정지은 ‘프리미어리그 라이벌’ 아스널과 결승행을 다투게 됐다. 특히 맨유는 이날 승리로 최근 포르투와 원정에서 3연패를 당했던 ‘원정 징크스’를 털어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잉글랜드 프로팀

들이 당했던 11경기 연속 포르투 원정 무승(6무5패)의 치욕도 깨끗이 씻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박지성(28)은 체력적인 부담 때문인지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출전선수 명단에서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박지성이 명단에서 아예 제외된 것은 지난 2월22일 정규리그 블랙번전 이후 2개월여 만이다.

한편 아스널은 비야 레알과 치른 8강 2차전 홈 경기에서 전반 시오 윌컷의 선제 결승골을 시작으로 후반 15분 토고 출신의 스트라이커 에마누엘 아데바요르와 후반 24분 로빈 판 페르시의 페널티킥 쐐기골이 작렬하면서 3-0 완승을 했다.

이에 따라 1차전 원정에서 1-1로 비겼던 아스널은 1, 2차전 합계 4-1로 앞서며 세 시즌 만에 4강행을 확정지은 맨유와 결승 진출을 놓고 치열한 혈전을 펼치게 됐다. 전날 경기에서는 헬시가 리버풀을 제치고 4강에 선착하면서 프리미어리그 3개 팀이 8강 판권을 통과해 맨유-아스널, 첼시-FC 바르셀로나(스페인)의 준결승 구도가 확정됐다. /연합뉴



레이크힐스 순천CC

주중 특별회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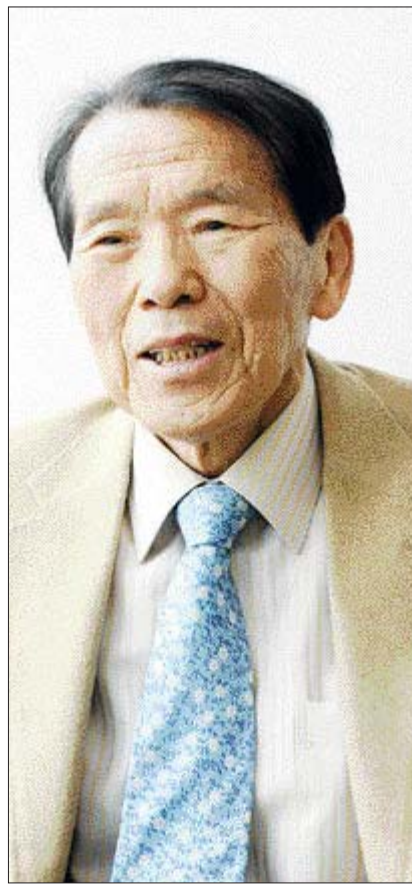
레이크힐스 순천 컨트리클럽이 내달 28일 SBS골프투어를 앞두고 주중 특별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레이크힐스 순천 CC는 내장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개인 2천만원, 법인 3천만원의 초저가로 회원모집을 시작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레이크힐스 순천 CC에 따르면 레이크힐스 제주까지 주중,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주중 특별회원권은 소수구좌만 선착순 분양한다. 문의 061-729-8866.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 배구 붐 일으키는 계기”

고광삼 광주시배구협회장



“광주에 다시 배구 붐 일으켜 지역스�포츠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국제경기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일 V리그 탐매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6일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만난 고광삼(75) 광주시배구협회장은 오는 18일 광주염주체육관에서 열리는 흥국금융가축배 한·일 V리그탐매치를 앞두고 광주 대회 개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타시도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인 끝에 광주 대회를 이끌어 낸 고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프로 최강팀간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스타들의 화려한 플레이로 배구 팬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회인 만큼 각 시·도협회가 서로 개최하고자 하는 경쟁이 뜨거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회장은 “최근 10년내 광주에서 처음 여는 국제대회이기에 원활한 대회 운영도 중요하지만 일본 선수단과 국내 참가팀에 대한 손님맞이에도 특별히 신경써 광주에 있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배구협회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내년에는 남녀대회 모두 광주시 여는 스포츠 빅이벤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고 회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국 배구팬들과 관계자들이 광주 배구 열기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대회도 문제없이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금 배구 붐 조성의 최적기라 판단한 고 회장은 “광주 연고 여자 배구 프로팀을 만들어 침체된 지역스포츠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면서 “지역기업을 상대로 임태희 대한배구협회장과 함께 의사타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50여년 광주 배구 육성에 앞장서 온 고 회장은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요즘 부모나 학생들이 운동에 대한 관심이 낮아 예전처럼 두터운 선수층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프로나 대학팀에선 우선 키 180cm 이상의 선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든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고 회장은 “장기적으로 배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교육청과 체육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열악한 지역스포츠가 살아나려면 일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 지도자 발굴에 대해서도 고 회장은 “오직 선수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빠른 시일내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선수들 못지않게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어머니 배구대회를 만들어 저변확대에 앞장서 온 고 회장은 오는 25~26일 이틀간 염주체육관에서 9인제 남녀 배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시내 60개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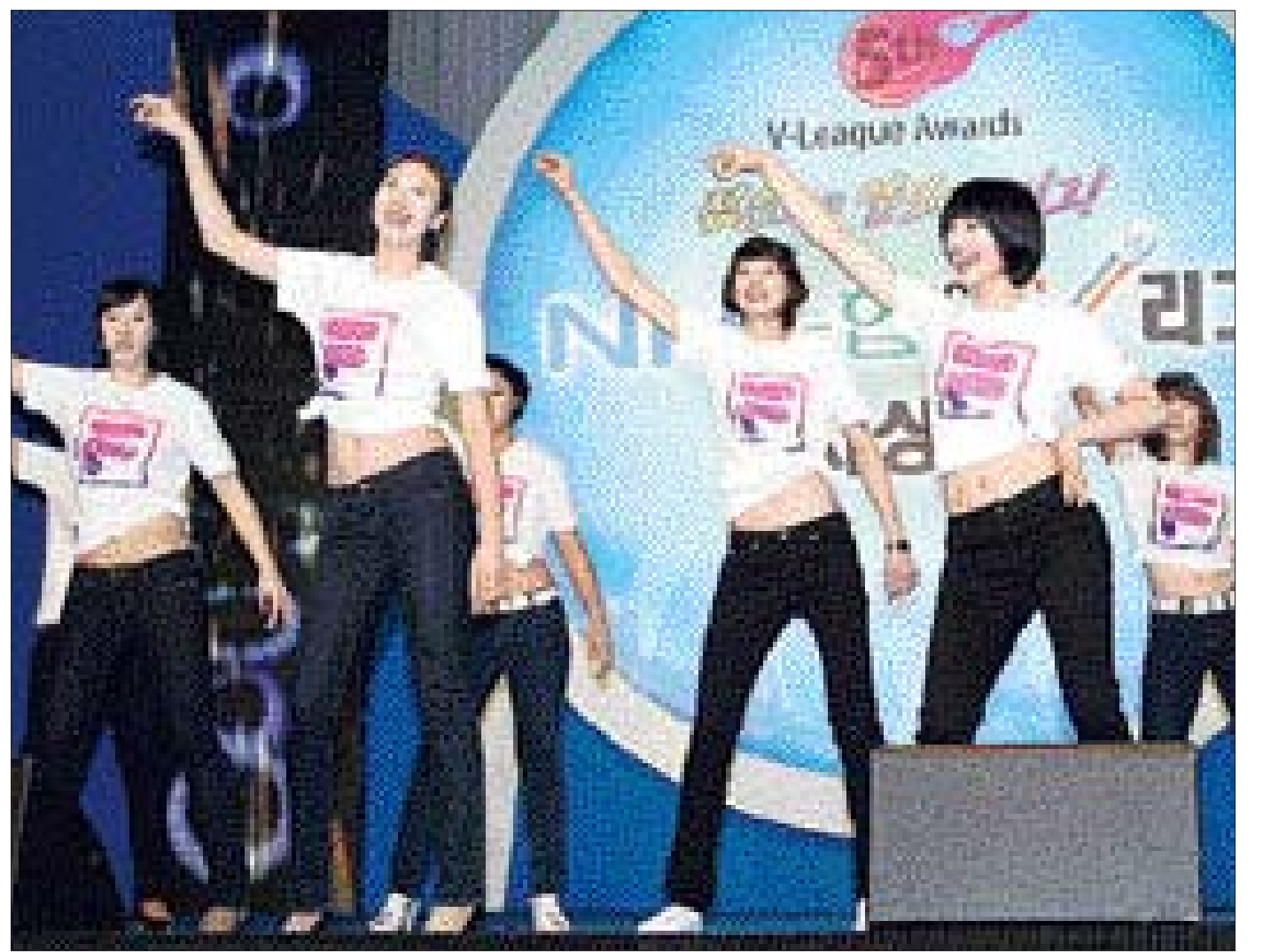
고 회장은 “배구는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운동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클럽팀에 대한 관심도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 회장은 “일생을 배구계에 몸담아 온 만큼 예전의 광주배구의 전성기를 반드시 되찾고자 한다. 아울러 교육·문화 뿐만 아니라 체육에서도 막강 광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재임 기간 중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V-리그 챔프 ‘댄스도 챔프’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시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NH 농협 2008~2009 프로배구 V-리그 시상식에서 흥국생명 선수들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